

10명 불자 미화원들 '어둠 51시간 염불 51시간'

“부처님 가피로 죽음 문턱서 생환”

51시간의 사투 끝에 지난 1일 저녁 극적으로 구조된 삼풍백화점 미화원 생존자 24명 가운데 김금순씨를 비롯한 10명이 불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불자로 밝혀져 화제다.

사고당일 4시30분경 업무교대와 퇴근 준비를 위해 동료들과 지하 3층 청소용역 직원대기실에 모여 있었던 김금순씨(55세)는 우리같은 평범한 함께 순식간에 암흑속에 갇혀버렸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꼭 살아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

서로 위로 천수경 외우며 마음평정 찾아

로하고 그때부터 쉬지않고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김씨는 강남병원의 병상에서도 항상 지니고 다니던 단추를 오른 손목에 차고 있었다.

“심혼을 뽑기위해 다니기 시작한 절집과의 인연이 제가 이렇게 암흑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김씨는 입적하신 해인사 차운스님의 조카딸이라 밝히기도, 김씨는 병문안을 온 정동 보국사 타원스님의 손을 꼭 잡고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생환의 기쁨을 찾아 웃어보였다.

4년째 삼풍백화점에서 근무해 온 고창 미화원 서춘희씨(60세)도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며

잠사 역사에 핀 자비의 꽃

콘크리트 구조물이 뒤엎힌 처참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연일 불교계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등 성금전달

○...사고 다음날인 30일 조계종총무원이 사고 대책본부에 2천 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태고종 3백만원, 총지종 5백만원, 천태종이 1천만원의 성금을 각각 전달했다.

○...조계종은 또한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영가천도 초재를 지난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월주스님을 비롯 불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오는 19일에는 조계종의 주도 아래 전통단 합동위령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강남 인근 사찰인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을 비롯 정토포



○강남병원인 362호 병실에 입원중인 김금순보살. 생명을 되찾게 해준 부처님의 은덕에 환한 미소로 답했다.

죽음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던 자신을 추스렸다”고 말했다. 서씨는 병상에서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많은 매몰자들이 한사라도 빨리 구출되기를 부처님께 기원 올린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강남병원에는 이틀외에도 지난 1일 맨먼저 암흑을 뚫고 나온 이계준씨와 7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자신의 동등한 체격때문에 한사코 마지막에 나가겠다고 극한 상황속에

이은자 기사



○폐허가 된 삼풍백화점 붕괴현장 곳곳에서 불교 자원봉사자들도 한뼘을 담뿍하며 불법실천에 앞장섰다. 사진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월주스님(左)과 붕괴현장 앞에서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며 독경하고 있는 학인스님들의 모습(右).

사부대중 헌혈 줄이어... 19일 합동 위령제 인근불자들 정성어린 음식·구급약등 제공

교인 청년회, 여래인, 백련사, 평택 명법사, 경륜터 자비의 집 등의 자원봉사자들은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특재육계장’ ‘추어탕’ ‘불고기’ 등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과 구급품을 준비, 구조작업으로 지친 이들의 입맛을 돌리려 힘을 जु기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구조기간동안 자원봉사단 뺑지를 만들어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배포하고, 수차례에 걸친 구호물품등을 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종단차원의 부상자간호와 인명구조를 위한 종합적인 자원봉사단을 창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소식에 접하고 동료대원 9명과 함께 구조지원을 위해 올라온 대전 중부 119특별구조대 소속 방화현물자(37세)도 평민사에서 새우잡으로 피근을 극복하며, 콘크리트와 철근사이를 오가는 하루 20시간의 목숨을 건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방씨는 “지휘체계의 부

재정으로 혼란도 많았지만 한사탐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려는 마음으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반고 “구조현장 가자” ○...사고당일인 지난달 29일 분진과 유독가스속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뇌일혈로 쓰러진 송과소 당시 장민덕 소방장은 2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한 근무태도와 성품으로 ‘부처님’이란 별명까지 갖고 있는 독실한 불자.

소방본부장 강원도 거사

‘한 생명 더’ 붕괴현장 누벼

“갑작스런 사고로 구조과정에 서 많은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소방대와 119구조대, 경찰, 군, 자원봉사자가 함께 협조해 구조작업을 전개해 나갔다”고 말하는 강소방본부장은 “특히 삼풍백화점 미화원 24명 구조시에는 구조대원들이 전기드릴을 사용, 좁은 통로를 뚫어 시각을 다루는 인명구조작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이번 구조작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구조장비 조달에 대해 강소방본부장은 “현재 119구조대에 25종의 구조장비가 마련돼



있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많은 장비가 필요해 앞으로 유관기관과 정부의 사전협조를 통해 구조장비 확보에 더욱 힘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비싼 업무로 자주 부처님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아내와 가끔 접근처 사찰을 참배한다는 강소방본부장은 겸게 그을린 얼굴로 “구조작업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다시 구조현장으로 향했다.

특별기고 고은

살아있는 누구인들 지난 며칠동안 밥잠을 설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야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온 세계의 지구 곳곳마다 한국의 ‘삼풍’으로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참에서 삼풍은 우리의 실상을 한 오리 거짓없이 알려준 대치육이기도 한 것이다.

우선 몇몇명에 이르는 지존한 인명이 시루떡 증충으로 건물 옥상에서부터 내려앉은 아이없는 붕괴로 희생된 데 대한 슬픔이 앞선다. 하지만 그 몇 백명의 사망자의 인격이나 친구의 벗 잃은 슬픔이야 그것이 어찌 견줄 수 있겠는가.

그들 유가족에 대한 정중한 위로조차도 도대체 군더더기인지 모르나.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아 사람일지라도 살아남아 기쁨과 슬픔이 달린 악몽의 총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기까지의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나든 희망을 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폐허의 지옥에서 시

인 품성이나 도량을 찾아볼 수 없는 막된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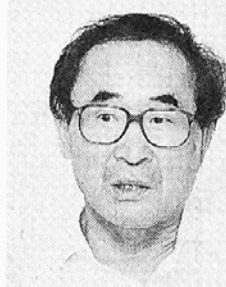
이런지라 인간의 정신에 반영되는 ‘자연’보다 ‘인위’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불법에서 고통을 말하고 있다. 일체가 오로지 마음으로부터 지어진다 는 말도 그것이며 마음에는 안도 밖도 없다는 말도 그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란 이런 추상이 결코 아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관념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이 눈을 통해서 천리 앞을 내다보고 그 마음이 발을 통해서 천리를 가는 것이다.

바로 이 마음쓰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일진대 거기에 부패, 부실, 이기주의의 그리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의 부재로 나타난다.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이라면 한국의 악명 높은 걸치레야말로 한국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삼풍의 참변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앞으로 제2, 제3의 삼풍이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느냐는 위기의식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삼풍참변’ 지옥연출한 대치육

걸치레병은 한국인 마음... 참회 없으면 못살아

신 한 구라도 찾아내는 것이 현장에서 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이 유례없는 붕괴사고는 그러나 이 사고만으로 말해질 수 없다. 최근 몇몇 동안 육·해·공의 어느 곳도 빼놓지 않은 대형 참변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지상이 아닌 지하의 비극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본디 지옥이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 인도의 감옥은 땅을 파서 그 안에 구수자를 가두어 놓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지옥으로서의 감옥이었다. 영화 ‘뽀빠이’의 무인도 감옥도 이런 지옥이 아니던가.

우리의 대형사고는 이토록 지옥까지 연출해 내는데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속적인 대형사고는 조금만 잘 살핀다면 예방될 수 있었다는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고 이런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솟게 건성이었다는 상황에서 관재였던 것이다.

집 한 채를 짓는데도 몇백년이 걸리는 일이 지금 지구의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아침이면 외형상 으리으리한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동안 이런 성급한 성장주의와 탐욕의 물질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내달려왔다. 그런 나머지 어디에도 인간적

지하철을 타도 목숨을 열라대왕에게 맡기고 타야 하고 주부가 가스로 밥을 지을 때도 목숨을 저승에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날마다 세워지고 보는 신축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사는 일도 어찌 그것이 불안과 공포 없는 편안한 마음의 경지이겠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오묘한 연기론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단순논리로서의 인과론에 의해서 얼마든지 실증되는 것이다. 잘못 만든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와함께 거의 상부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런 뒤 다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반복이 이번의 삼풍 비극에 이르렀다. 이제 삼풍은 삼풍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삼풍공화국이라고 야유하는 소리를 말할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각계의 참회 없이는 나라 안에서 살 수도 없거니와 나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시인, 본지 논설교문)

생활속의 불교 32

“우상숭배자들의 퇴할 수 없는 비극”



공수래 공수거,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 고로 진정한 내 것,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란 없다. 지금 내게 거금이 있다 해도 그 돈은 언젠고 내 수중에서 나갈 것이 분명하다. 평생을 지냈다 해도 갈 때는 다 놓고 가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모든 재물은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것도 아니다. 누구인을 관리자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 기독교에선 ‘다 여호와와 것’이라 한다. 본래 내 것이 아니니 집착하지 말고 빈 마음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돈을 갖지 말라, 벌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애착을 두지 말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재물이 들고 나는 것은 두고 도는 속성일 뿐이니 관리자가 되라는 것이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곧 빈 마음으로 대하면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일단 호수로 흘러든 물이 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다. 배불리 먹고 나서 배설하지 못하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게 된다. 재물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 흐름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그는 먹는 것이 아까워 배설을 거부하다가 끝내 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재물을 쓰는 사람이 되라. 재물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곧 주인이요, 짐과라 온갖 풍파가 그를 맞이한다. 그러나

쓰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건강한 가족과 같이 자꾸 새끼를 치게 마련이다.

세상에는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대 성현들께서 누누이 마음을 비우라,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우상처럼 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나누나 돌로 짚은 형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재물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황금 만능을 부르짖는다.

황금이야말로 무소불위의 전능자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물이 고여 악취가 날 때쯤이면 우상처럼 받들던 재물은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물로 변하고 만다. 참담한 불행이 닥쳐올 때를 두드릴 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움켜쥐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다.

‘땅과 물’ 오염방지 및 복원의 신기술 보유

- 독성 유기화합물 폐수의 현장 처리 기술
- 오염 지하수의 완벽한 복원기술
- 일반 환경오염의 방지 및 정화기술

(주) 바투코리아 대표전화 : 02) 785-1362